

小規模企業의 健康管理效果



大韓産業保健協會
副會長 鄭奉哲

今年에 열린 제 4 회 韓日産業保健學術集談會에서 筆者는 한·일 兩則 共히 深度깊은 演題로서 發表交換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演題中에서 筆者가 새로운 感銘과 興味를 받은 例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勤勞者의 保健管理面에서 가장 脆弱하고 死角地帶하고 볼 수 있는 小規模産業體의 保健管理에 成功하고 있는 例의 紹介였다. 이를 抄錄에 依하여 要約하면

題目：小規模企業의 健康管理로 效果을 올린 實例

演者 柳田勝江(保健婦)

日本에서 中小企業의 産業全體에 차지하는 比率은 9 割以上이며 經濟에 끼치는 役割도 매우 크다.

그러나 中小企業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勞動衛生 管理事項은 大企業에 比하여 相當한 隔差를 보인다. 특히 小規模企業에서는 産業衛生管理者의 選任도 없고 保健管理는 個人意志에 맡겨져 있으며 企業에서의 施策은 거의 行하여지지 않는 것이 現狀이다.

이들 中小企業에 對하여 勞動衛生의 主된 施策인 健康診斷과 事後措置, 作業環境管理, 勞動衛生教育等を 計劃的 繼續的으로 實施하여 勞動衛生 管理活動을 推進하고 그 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한 役割로서 企業外勞動衛生機關이 있다.

神奈縣豫防醫學協會는 企業外勞動衛生機關으로서 前記 役割을 하고 있다.

그 役割을 遂行하기 爲하여 保健相談 業務라 하여 健康教育과 健康相談을 行하고 있으나 單純한 教育相談 뿐 아니라 企業의 하여야 할 勞動衛生管理業務 全般에 關하여 計劃에서부터 實施까지의 業務의 指導 助言을 하고 있다.

그 內容은 企業과의 契約에 依하여

- (1) 企業의 勞動衛生管理 全般에 걸친 相談業務
- (2) 健康診斷의 事後指導業務
- (3) 健康保險組合의 依賴에 依한 健康管理의 一括受託業務 등이 있다.

다음에 「健康保險組合의 依賴에 依한 健康管理의 一括受託業務」에 依하여 從業員의 健康管理에 效果를 올리고 있는 K(神奈縣豫防醫學協會) 健康保險組合에 關하여 報告한다.

1. K健康保險組合의 概要

- (1) 構成：組合員數 235 個社
被保險者數 7,300 名
- (2) 業種：室內외의 電氣工事
- (3) 從業員規模

規 模	企 業 數	率 (%)
1 ~ 49 人	199 社	84.7
50 ~ 99 人	21 社	8.9
100 ~ 149 人	8 社	3.4
150 ~ 199 人	3 社	1.3
200 以上	4 社	1.7

2. K健康保險組合의 保健相談業務內容 (健康管理)

- (1) 健康診斷事後措置, 健康相談
- (2) 糖尿病敎室
- (3) 腎疾患管理
- (4) 保健衛生管理 講習會等

3. 効 果

K健康保險組合의 健康管理業務의 一括受託에 依한 業務는 1974 年에 開始되었다. 235 個社에 對하여 9 名의 保健婦에 依한 企業擔當制를 마련하고 年 1 回 事業所에 出張하는 巡回健康相談을 中心으로 여러 健康管理을 行하고 있다.

K健康保險組合에 있어서의 健康管理의 成果는

- (1) 健康診斷 實施의 向上(1 次, 2 次檢査)
- (2) 有所見率의 低下
- (3) 醫療費의 現水準維持
- (4) 事業主 從業員의 健康에 關한 意識向上 等이다.

이 活動은 健康保險組合 主導型의 小規模企業의 健康管理의 實例이며 健康保險組合이라는 日本의 特徵的인 活動이다.

以上이 發表한 要旨였으나 매우 좋은 制度와 着眼이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① 其外에 日本은 健康保險組合 基金에서 基本的으로 五分之一分은 豫防事業에 使用하도록 되어 있어, 1,2 次 健康診斷費는 勿論 上記 演

題와 같은 事業까지도 一括受託에 依하여 同組合에서 費用을 精算함으로 勞使間問題等 圓滑히 處理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現實과는 매우 對照的이고 부럽게 느껴졌으며 一石二鳥의 成果를 올리고 있다고 보아진다.

우리는 産災基金에서 豫防事業에 配慮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生覺되는 바이다.

② 日本勞動省에는 厚生省所屬으로 7 名의 醫師出身 公務員이 派遣되어 있어서 勤勞者保健 管理事業部門의 行政에 參與하고 있음으로 特殊 行政의 專門性은 十分 配慮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차 이처럼 專門性이 고려된 保社行政으로 改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또한 우리나라는 專門醫制度를 採擇하고 있음으로 現在 産業社會를 맞이하면서 産業醫學 部門의 開發과 必須要員의 確保等에도 着眼하여야 할 時點이라고 보며 또한 향후 産業保健管理의 能率向上을 圖謀할 수 있도록 이 部門도 專門醫制度로 發展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④ 保健管理擔當者에 있어서. 日本에서는 教育을 正規看護婦課程을 마치고 希望에 따라 繼續하여 1 年間 公衆保健教育을 받은 者들을(保健婦) 各保健所, 學校養護, 産業保健等 部門에 必須的으로 配置하며 大概 全體의 20% 程度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不得已 保健管理擔當者 補修教育도 이러한 資格을 追加附與 할 수 있는 次元으로까지 格上시켜감을 考慮하여 볼 價値가 있다고 보며 現在 看護員 養成에 있어서도 看護大學(專門)을 마치고 極히 少數의 一部는 保健大學院에도 進出하는 것 같으나 이런 사람들의 數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地方保健所나 産業體에 가서 獻身的으로 勤務할 者가 있을가 하는 것도 疑問이기 때문이다.

⑤ 日進月步하는 社會에서 每事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야 할진대 觀念的인 隨性에만 사로 잡혀서는 發展을 期할수 없으므로 남의 長點과 短點을 取捨選擇 할줄 아는 智慧가 아쉬우며 斷片的인 所感을 結들여 적어본다.